

개신교와 한국현대사 월례강좌 (2018년 2월 5일, 김홍수)

남북분단, 전쟁, 전후의 한국교회

분단

1. 1945년 10월 18일, 평안남도 성천군 성천지구부흥회 5일째 되던 날 김일성의 요청으로 평양행, 김일성 면담.

“위대한 수령께서는 그에게 선생은 지식도 있고 목사로서 교인들속에서 인망도 높으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며 우리 나라에는 교인들이 적지 않다고, 그들을 굳게 묶어세워 건국사업에 이바지하도록 조직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그런데 지금 일부 종교인들은 우리와 함께 손을 잡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게 된 역사적 과정에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 . . 주체34(1945)년 10월 18일. 정녕 이 날은 강량옥선생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부국강병을 바라는 종교인이란 어떤 자세와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를 알게 된 운명적인 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알리는 인생의 봄날이었다.” 립인철, 『사랑과 믿음 속에 빛내인 삶』 (2013).

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선거-1946년 9월 5일 제2차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확대회의, 인민위원 선거일 확정(11월 3일). 『쉬떡꼬프 일기』 1946-1948』 (2004)에 의하면, 소련군 사령부가 선거의 기획, 추진, 감독. 10월 21-27일 사이 쉬떡꼬프는 북한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접견, 10월 25일 김익두 목사 만남.

3. 북조선기독교도련맹(1946) ->조선기독교도련맹(1974) ->조선그리스도교련맹(1999년).

“우리 나라 그리스도교인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민주주의적이며 초교파적인 그리스도교조직. 주체35(1946)년 11월 28일 평양에서 결성되었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조선대백과사전 17권, 2000).

4. 기독교민주동맹(1947)

전쟁

1.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중앙위원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Central Committee 성명, “Korean Situation and World Order.”
- 로마드카(Joseph Hromadka), 조자신(T.C. Chao).

- 현순, 황사용, 조승복(미네소타주립대 철학과 박사과정, 6월 26일 메카레스터 대학 학생회 초청 강연에서 내전 주장. 이승만은 전근대적 가부장적 전제를 정치적 이상으로 삼은 정치인이다. 이승만을 돕기 위한 미국의 참전에는 반대한다. 반전연설. 이 대학에 와있던 배민수와 충돌(조승복, 『분단의 한: 과거와 미래』 상).

-북한교회의 입장: 1950년 8월 5일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전승 쫓기대회.

“... 각 교회에서는 반드시 미제국주의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기 위한 정의의 성전에서 영웅한 우리 인민 군대가 하루 속히 완전 승리하도록 하느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필승 기원의 레베를 드리자! ... 내란 도발자와 침략자를 반대하여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민주와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며 성스러운 전쟁이다.” (“전조선 애국적 기독교도들과 전체종교인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노동신문」 1950년 8월7일).

-남한교회의 입장: WCC 문제, 휴전반대

2. 세계평화회의World Peace Council(1949)-한설야, 김창준, 박정애, (현앨리스). 1963년 10월 강양욱 목사 바르샤바에서 열린 세계평화회의의 참가.

- 기독교평화회의Christian Peace Conference(1957)-로마드카(일본교회는 기독교평화회의와 로마드카의 영향으로 친소반미적인 경향), 이반트(이영빈-1981,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간 대화).

- 일본개신교 대표단의 중국교회 방문(1957).

- 1975년 1월 조선기독교도련맹은 인도 고타얌에서 열린 아시아기독교평화회의의 Asian Christian Peace Conference(1975) 참석.

3. 의원단체-기독교세계봉사회Church World Service, 가톨릭구제회Catholic Relief Service 등

전후

1. 남-반공기독교, 기복신앙, 신종과 탄생(통일교, 전도관, 용문산기도원)

2. 북-반종교문서, 가정교회

- 정하철,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여야하는가』. 조선로동당출판사, 45쪽, 5만부. 1959년 8월.

- 백원규, 『미제는 남조선에서 종교를 침략의 도구로 리용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53쪽, 5만부. 1959년 4월.

- 로재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민청출판사, 50쪽, 5만부. 1959년 4월.